도시 기록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실험적 연구*

A Pilot Study on the Elements of Urban Documentation

여 진 원(Jin-Won Yeo)**
장 우 권(Woo-Kwon Chang)***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의 이론적 고찰
 2. 로컬리티 기록화와 도시아카이브
Ⅲ. 도시 기록화 구성요소 도출
 1. 연구 범위와 모형
 2. 연구 절차
Ⅳ.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패러다임에 대응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기록화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아카이브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Delphi)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도시 기록화의 기록분야와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고, 각 분야와 요소들을 유형화, 계층화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 6개 분야(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와 문화, 사회와 교육, 산업과 경제, 교통과 통신)에서 62개의 구성요소를 도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6개 분야에서 32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키워드: 도시패러다임, 도시기록화, 델파이조사, 도시기록화 구성요소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spond to changing paradigms in urban planning and derive requirements needed for urban archiving for the purpose of urban growth. In this research, the Delphi research method was used twice on experts on urban archiving in order to derive areas and required elements of urban archiving. Moreover, each area and elements were formalized and categori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1st Delphi research, 6 areas (natural environment, liberal arts environment,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dustr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a total of 62 elements. In the 2nd Delphi research, six areas, a total of 32 elements.

Keywords: Urban paradigm, Urban documentation, Delphi research, Urban archiving elements

* 이 글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 요약 ·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yeopo_81@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12월 2일 •최초심사: 2015년 12월 2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75-598,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57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시는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으로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류의 문화적 활동이 가장 많이 누적된 공간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새로운 정보와 상품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백화점이 되었다. 또한 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경제・사회・문화・정치・건축・조경・역사・관광 등)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곳이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모든 정보의 중심지인 도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는 시간이 누적된 자원들과 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원들이 많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발견하여 인식시키고 발전적으로 재생(再生)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999, 211). 이를 위해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잘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도시가 지닌 수많은 기록들은 소중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며 나아가 문화적 자산이다. 도시를 규격품처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도시가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시대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상속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테오도르 폴 김 2009, 61, 128).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도시민의 삶의 행위를 잘 기록하여 정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또한 도시는 건설이 아닌 역사의 경험으로 만들어져 현재의 삶이 과거와 비교되고 검증되어 평가되는 장소다(테오도르 폴 김, 2009, 130). 즉 도시 고유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안에서 오늘의 역사 또한 살아 숨 쉬는 것이 보일 때 도시는 그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안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미흡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 내 기록 자원들의 발굴과 활용을 통하여 우리는 그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도시와 관련된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 등을 보존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도시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집・관리한 도시 내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여 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도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이다. ‘도시 아카이브 구성요소’의 도출은 최근 기록학 분야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도

시(지역) 기록화 전략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도시 내 기록화 자원의 조사와 분석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가치 있는 자원의 발굴과 보존에 대한 기준과 원칙 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도시와 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도시와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과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도시가 지닌 특성, 환경 분야 등을 기록화 구성요소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구축된 도시 아카이브를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기록화 방안에 활용하였다. 셋째, 도시 아카이브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도시 아카이브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3. 선행 연구

도시 기록화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크게 지역 기록화에 관한 연구,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도시 분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마을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지역 중심의 기록에 관한 연구이다. Cox(2001, 111-148)는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ies)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실시할 때의 지역성(locality)을 강조하여 기록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포함하는 전략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잠재적 가치보다 '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이 아닌 지역의 커뮤니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요시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실용적 접근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였다. Kammen(2003, 91-120).은 특정 지역의 역사적 사건들, 사람들, 그리고 집단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서에 근거하고 지역차원과 국가차원의 상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연구임을 밝히고, 지역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지역의 관계를 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기반을 두고 융통성 있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의 지역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 설문원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과 기록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이용한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도큐멘테이션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설문원 2010, 103-149). 또한 Cox 등이 주창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과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을 제안하여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설문원 2012, 437-455). 권순명, 이승휘(2009, 41-84)는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 지역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를 5가지로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록화를 강조하여 지역의 대표적 특성을 조사하여 기록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도시와 관련된 연구로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초기 도시의 경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도시의 개성과 역사성 및 이미지에 초점을 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 이미지 연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간, 건축물, 장소, 조형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놓고 도시 외관의 이미지를 측정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Linch(1960, 46-90)는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지표물(landmark)의 다섯 가지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Linch는 도시 이미지에 대한 많은 영향을 국내 연구자에게 끼쳤다. 박영춘(2002, 29-40)은 전주시 신개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삼아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도시 이미지를 추출하였으며, 손은영, 김종하(2002, 659-662)는 물리적 요소로서 자연·역사적 요소, 건물 요소 및 도시요소, 비물리적 요소로서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 등을 강조하였다. 권창기와 이재호(2004, 117-135)는 도시 이미지 요소 추출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도시 운영 전략 등을 연구하였다.

셋째, 도시 분야의 기록물 관리 연구이다. 유광흠(2009) 등은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말숙(2012)은 재개발지역의 도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기록물 유형 및 기록화 방식,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민속, 생활사, 지역 아카이브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을 하였다.

넷째, 도시 아카이브와 관련 깊은 마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이다. 이영남(2008, 221-254)은 국가기관의 편향적인 기록에서 벗어나 마을단위의 아카이브 필요성을 제시하여 '마을 아르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김익한(2010, 151-172)은 일반 기록관리 이론과 마을 아카이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마을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마을의 구성을 자연공간, 인문공간, 역사, 공동체 조직, 공동체 문화, 경제활동, 소조직, 개별가호,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외에도 최근 지역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 분야의 공공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학 측면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도시에 관한

아카이브는 구체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도시 아카이브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의 이론적 고찰

가. 도시의 개념 및 특성

도시는 인간의 거주형태로서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1]이며 의미의 중심으로서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우연적 사건과 필연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간, 물질, 기억의 흔적들이 적층된 퇴적체이다.[2] 도시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도시를 단순히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만 정의하지는 않으며, 인구집중 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경제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적 개념규정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에 대한 개념을 인구 · 시설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문화적,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도시라는 공간속의 구성요소들안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형성되어있는데 그 의미들은 시 · 공간적 축을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도하고 중첩되기도 한다.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당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듯 도시는 많은 의미들과 해석들이 그물망처럼 엮여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는 그 다양한 의미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1) 도시 정체성

도시 정체성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무언가가 이 도시에는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도시안의 지역성이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신 또한 도시의 정체성이다. 도시 정체성은 도시가 가지는 고유의 사회적 · 공간적인 맥락에서 탄생한다. 역사 정체성은 역사적 사실,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유적 등이며, 문화 정체성은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등이다. 또한 경관 정체성은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구조물,

---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091&cid=40942&categoryId=33136> [인용.2015.12.11.]

2) 그 흔적들은 도시의 형성물-장소, 길, 건축물, 공간, 표면 등-에 파편화되어 숨겨져 있으며, 도시의 문제-기억의 단절, 흐름의 단절, 맥락과의 단절-를 진단하고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부분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이미지로서 기억하게 된다.;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서울: 도서출판 대윤, 2005), p.278.; 임우재, 기억의 장소로서 도시 건축(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3), pp.61.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등이며 산업 정체성은 관광, 첨단산업, 수공업, 농산물, 제3차 산업 등이다. 따라서 도시 정체성의 확립은 곧 도시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도시의 성격을 밝히고 도시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에 도시 이미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2) 도시 이미지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그곳에 대한 개개인의 마음의 생각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점, 경험에 따라 각인되므로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윤옥경 2011, 726).

도시 이미지 형성은 크게 실체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로 구성된다. 실체적 이미지는 도시시설 및 건축물, 자연환경, 도시공간 및 장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징적인 이미지로는 역사성, 도시생활 기반, 도시기능, 외적이미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에 있어서 도시 이미지 유형 자체가 몇 가지로 구분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추론해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 이미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바로 이념적 상징으로서 도시 이미지와 물리적 실체로서 도시 이미지이다(권재경 2012, 18). 따라서 도시 이미지는 그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나 인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시 이미지의 다양한 전략들이 세워지고 도시 브랜드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용된다.

3) 도시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핵심 목표대상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도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과정을 의미한다. 도시 브랜드의 관점으로는 표식, 시각적 상징, 조직관리, 기억의 단서, 위험감소자, 정체성 체계, 이미지, 가치체계, 개성, 관계, 부가가치, 진화하는 실체가 있다(권용우 외 2012, 118). 도시 브랜드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타 도시와 구별되며, 지자체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함축되어있는 종합적인 상징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

나. 도시의 구성요소

도시는 거주민인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 유통 · 소비에 관련된 제반활동인 경제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 · 제도 · 가치관 · 생활양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물 · 대기 · 토양 · 녹지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와 주택 · 공장 · 상가 · 공공시설 · 도로 등과 같은 인공시설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도시를 하

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다시 재정립하면, ① 도시의 주체인 '시민'과 ② 그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반 '도시활동', 그리고 ③ 그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 토지와 시설'이다. 여기에서 도시활동은 도시 인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고, 토지와 시설은 다시 도시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토지나 시설, 즉 도시공간은 시민의 중요한 환경으로서 사람의 사고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밀접하고 상호결정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노춘희, 김일태 2012, 68).

다.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 패러다임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시대상황을 반영하면서 전환하는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관한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되었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은 뉴어버니즘, 스마트성장, 콤팩트시티,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어번빌리지, 슬로시티, 마찌즈쿠리, 지바의제21 등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국가나 도시가 사회적 · 경제적 · 물리적 차원의 다양한 환경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의 범위 내에서 자원, 인간, 재료, 재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 관리하고, 그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 향상시켜 현재 및 미래세대의 생활의 질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James 1996, 107).

도시 발전은 인구, 산업시설, 교통, 주택, 생태환경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다. 도시지속성 원칙설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 보호만이 아닌 장기적인 이슈 및 경제, 사회, 환경 모두를 고려해야하며, 단기적인 비용과 편익에 얽매이기보다는 환경의 측면을 절대적인 제한요소로 간주하는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2) 도시 환경의 구성체계

이 연구는 도시의 기록화 전략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적 연구 틀에 두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분야를 기본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도시의 환경적(또는 물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분야는 서로 다른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도시의 실체와 연속성을 부분적 혹은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각 분야는 서로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며 도시 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 목표와 수단 및 구속을 의미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는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환경적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에 균형된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Maclaren 1996, 186). 이런 점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은 도시의 구조를 형성하는 세 가지 환경의 균형을 의미한다(황정환 1998, 27).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 체계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각기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어떤 일정한 한계 조건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결국 이러한 각각의 환경의 다차원에서 평가하는 틀은 바로 도시 아카이브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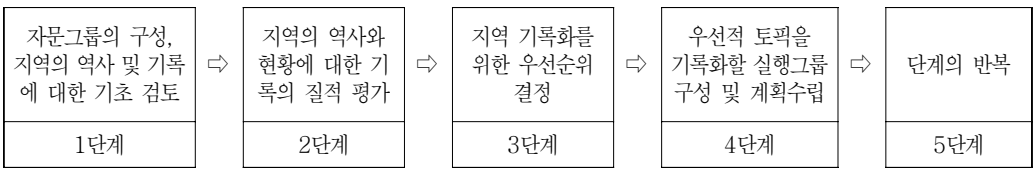
2. 로컬리티 기록화와 도시아카이브

가. 로컬리티 기록화

로컬리티 기록화(documenting locality)는 지역성(locality)에 기반을 둔 기록화 전략으로서 1980년대 Cox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지역'에 적용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Cox는 지역성을 "문화적이거나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다른 기타의 이유로 각자 동질성을 느끼는 이웃에서 의회나 시,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지리적 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 <그림 1>은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 모형을 도식화한 모습이다(설문원 2012, 439).

지역(locality)과 도시의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과 도시에 대한 고유의 특성을 담은 것이다. 지역 주민 혹은 시민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 지식 속에 녹아있으며, 기록화 작업은 그 경험과 관계들을 풀어내고 고유의 분류체계를 찾는 작업이다.

따라서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도시 아카이브의 구성요소는 도시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음 <표 1>은 지역아카이브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 모형

지역 아카이브의 각 요소의 성격을 살펴보면 실체적인 요소와 상징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적인 요소란 가시(可視)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경관인 도시 내 건축물이나 역사 문화재, 야경, 교통이나 행정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상징적 요소는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를 말하며, 도시의 상징성이나 도시민의 사회

<표 1> 지역 아카이브 구성 요소의 다양한 견해

구 분	요 소
Richard J.Cox(1996)	농업, 예술과 건축, 사업 · 산업 · 제조업, 교육, 환경문제 · 자연자원, 노동, 의료 · 보건, 국방, 정치 · 정부 · 법, 인구, 레크리에이션 · 여가, 종교, 과학 · 기술, 사회조직 · 커뮤니케이션, 교통 · 커뮤니케이션
권순명(2009)	주민, 문화, 종교, 공동체, 내부인식, 역사적 발전, 지역보도, 경제, 생산, 행정, 정치, 교육, 지리, 풍경, 자연 환경, 건물
설문원(2011)	예술, 건축, 산업, 교육, 환경 · 자연자원, 노동, 의료 · 보건, 정치, 인구, 여가, 종교, 과학기술, 언론, 교통

성과 개인의 경험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과거의 요소들이 물리적 요소가 주가 되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비 물리적 요소의 영역이 많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도시 내 이루어지는 누적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기록하는데는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 분야의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 도시 아카이브는 가치가 있는, 기록이 가능한 요소들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서 도시의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기록 관리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지방기록물의 수집관리주체 또한 미약한 상황에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3] 이러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최근 기록계에서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다종의 기록 소장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기록화 접근법을 통해 기록의 품질 통제와 비효율성의 문제를 타개하고,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로컬리티 기록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집에만 치중하는 것을 벗어나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포괄하고 지역 문화콘텐츠를 생산 · 활용할 수 있는 기록화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기록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체계적인 도시 아카이브 구성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 아카이브

도시 안에는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축적을 통해 고유한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록 자원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따라서 기록화 전략의 수립에는 반드시 도시 내 기록 자원의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략 수립 후에도 도시 공간의 형성 및 변화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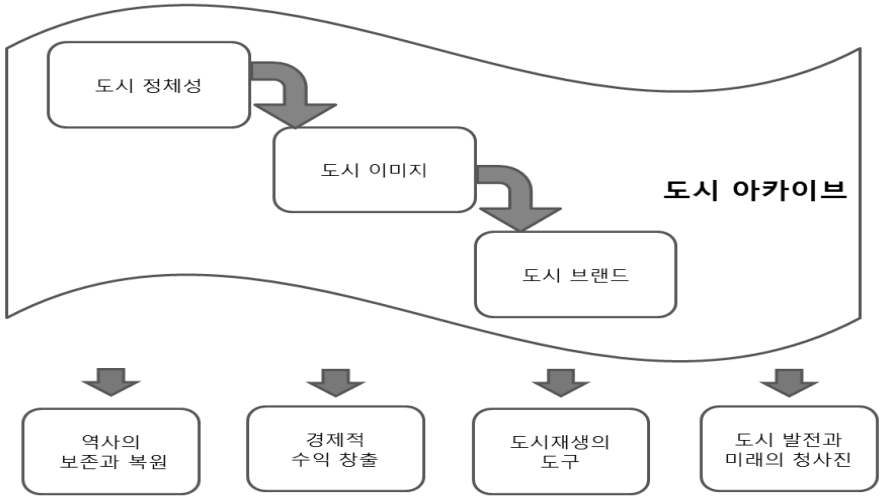
3) 권상구 외, Urban Archives: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장소의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안양시 : 국토연구원, 2014), p.13.

또한 도시 내 가치 있는 자원은 도시 안의 공간에 산재되어 있어 그 수집과 기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은 자원의 수집과 기록에 막대한 시간, 예산, 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력과 관련해서는 해당 도시에 밝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 간의 협력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지역 내 기록 자원의 수집과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투입되는 시간, 예산, 인력을 줄이기 위해 수집·기록 지역과 객체를 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큰 어려움은 이처럼 필요한 시간, 예산, 인력을 줄이기 위해 도시 내 자원의 수집·기록 지역과 객체를 한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객체를 수집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자원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표적인 객체만을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수집하고자 하는 자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수집・기록지역과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난제가 된다.

도시 아카이브 역시 앞서 언급한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도시 기록화 전략의 수행이라 함은 도시 환경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시 아카이브다. 즉, 도시 아카이브는 도시 환경에 새겨진 기억과 흔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도시 아카이브는 도시가 발생시키거나 유발한 어떠한 행위를 기록하는 일이다. 도시를 기록한다는 것은 해당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과 개성인 지역성이 담겨있어야 한다. 도시가 지닌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도시 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권상구 2014, 25).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록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도시에 대한 기록화 역시 주제와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시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기록화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사회의 성격과 문화, 역사적 환경들이 서로 조화되어 나타나며, 그 조화된 정도나 깊이에 따라서 다시 가고 싶은 도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도시로 구분될 수 있다. 도시 아카이브의 역할은 도시 정체성 확립에서부터 도시 이미지 형성, 도시 브랜드 창출까지 모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음 <그림 2>은 이러한 도시 아카이브 구조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한 도시 아카이브 구축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도시 모습을 수집하여 기록함으로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확보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모하는 도시의 기록들은 삶의 원칙들과 실제 양상에 대한 이해와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림 2> 도시아카이브 구조

다. 도시 아카이브의 유형과 사례

도시 아카이브의 유형으로는 크게 주제별과 주체별로 나눌 수 있다. 도시의 주제별 유형은 도시가 가지는 특징, 즉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 예를 들어 도시의 경관 사진이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 등을 주제로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있는 기록이다. 반면 주체별 유형에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 정부나 시청 주관, 학교나 개인, 단체 등으로 나누어지며, 기록물의 성격이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표 3>은 도시 아카이브 유형에 포함되는 국가와 아카이브 명칭이다.

<표 3> 도시 아카이브 사례

유형		국가	아카이브 명칭
주제별	경관	한국	부산도시기록[4]
	스토리텔링	한국	대구 북성로 공구박물관[5]
	산업(공업)관련	프랑스	Roubaix Archives(강경표 2008, 23-24)
주체별	정부	영국	London Metropolitan Archives[6]
	시민	한국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7]
	혼합형	영국	Connecting Histories[8]

4) 부산도시기록. <http://abcd.busan.go.kr/introduce/introduce.vm>
5) 대구 북성로에 부는 도시재생의 바람,<http://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1>
6)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http://www.cityoflondon.gov.uk/>[인용. 2015. 11.15]

도시 아카이브의 유형과 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도시 이미지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경관이나 주요 건축물의 모습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이야기와 특징을 찾아내어 기록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은 도시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이나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도시민들이 친숙한 이미지나 장소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소장자료의 수집·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도시 기록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 기록을 구축하고 제공 받음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였다. 구축된 아카이브를 토대로 시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며, 각자가 도시의 역사의 수호자로서 아키비스트(archivist)가 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구축·활용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도시 내 기관이나 대학, 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물적·인적 지원체계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정보 공유 차원뿐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해당 도시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Ⅲ. 도시 기록화 구성요소 도출

1. 연구 범위와 모형

이 연구는 도시 아카이브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분석 ·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은 어떤 분야가 있는가? 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이론적 고찰과 구성 요소 도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 도출이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델파이 기법의 활용이다. 델파이 기법은 반개방적으로 수집된 1차 설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을 구성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반응을 분석하여 도시 아카이브 구축시 필요한 최종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계층적 구조화된 평가의 틀을 구축하였다.

---

7) 원주…길을 걷다 “展 포스터. <http://cafe.naver.com/wj24.cafe> [인용. 2015. 11.15]

8) Connecting Histories.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인용. 2015.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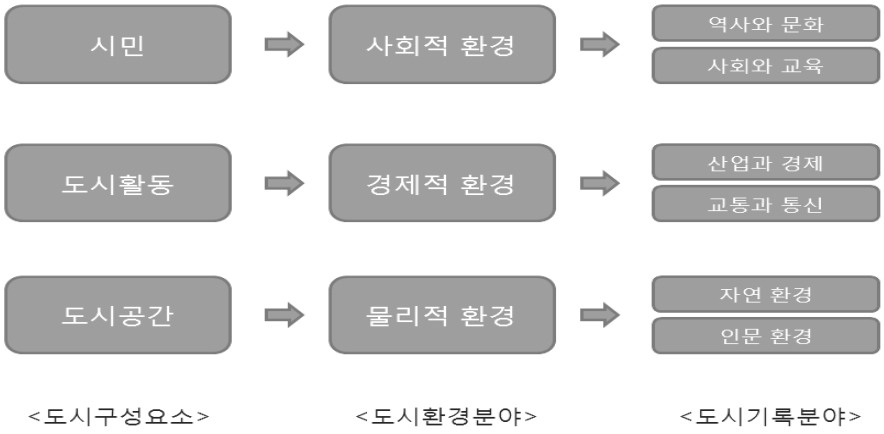
〈표 4〉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의 분야 도출(유형화, 체계화) / 조사 · 분석 방법론의 정립
2단계	Delphi 기법을 적용,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 도출
3단계	도출된 기록화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한 도시 기록화 방안 제안

2. 연구 절차

가. 측정 항목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도시 구성 요소인 시민, 도시 활동, 도시 공간을 각각 도시 환경 분야인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록화하기 위한 분야로 역사와 문화, 사회와 교육, 산업과 경제, 교통과 통신,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의 6가지의 기록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도시 기록화 분야 도출 과정

도시 기록화 분야의 요소 내용 및 계층별 요소의 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분야의 요소들에 대한 델파이기법의 제1차 반개방형 설문지에서는 선정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전개된 2차 설문지에서는 폐쇄형, 선택형 질문을 통해 각 항목간의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분석하고 생성된 이론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표 5〉 도시 기록화 분야의 요소 내용 및 계층별 요소의 수

상위계층	중위 계층	분야 및 요소의 내용	하위 계층
환경	자연 환경	도시의 지형과 지질, 도시 내 자원, 기후, 생태/식생, 도시 환경 문제 등	7
	인문 환경	도시의 인공적인 요소, 즉 도시의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	6
사회	역사와 교육	도시만의 역사성을 살린 개성 있는 요소, 역사적 장소, 교육을 위한 학교 등	4
	사회와 문화	도시의 정치와 사회 조직, 주거 문화와 더불어 의료와 보건 복지, 체육, 예술 등	7
경제	산업과 경제	도시의 대표 산업과 기업과 공장, 또 노동시장 등	5
	교통과 통신	도시 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 시설과 정보를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 정보 통신 시설 등	7
도출된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			36

나. 전문가 선정

이 연구의 참여자는 델파이 기법 적용을 위한 전문가 및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집단, 즉, 도시 계획과 기록화에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학술적,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서 주로 교수(문헌정보학과, 도시개발관련학과), 국가기록원, 전국 시청의 도시 계획, 도시 개발 분야 관련 실무자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Purposive Sampling)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표 6〉 델파이 전문가의 분류

지위 및 직업	표집 인원	실제 응답 인원	
		1차	2차
교수 및 연구원	20	11	17
관련분야 실무자	20	9	15
계	40	20	32

다. 자료 수집

이 연구는 2차에 걸쳐 도시 기록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설문 수집은 2주간의 기간을 유지하여 대상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각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쉽게 배려하였으며, 2013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조사를 유도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 및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의 분야를 1) 자연 환경, 2) 인문 환경, 3) 역사와 문화, 4) 사회와 교육, 5) 산업과 경제, 6) 교통과 통신으로 설정하고

각 분야에 속한 요소에 대하여 반개방형 질문으로써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기술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총 4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초기 조사의 진행에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답할 참여 전문가들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 발송이외에도 직접 방문과 전화로 응답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20명의 전문가 패널에게는 응답을 회수하는데 실패하였다(50%).

2차 조사는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폐쇄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설문을 진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재차 직접 방문과 전화로 응답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32명으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였다(80%).

라. 델파이 분석 결과 및 고찰

1) 제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조사에서는 자연 환경을 비롯한 각 분야별로 전문가 패널들이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반 개방형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6개 분야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로 총 70개의 구성 요소들이 나열되었으며, 이중 각 분야별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62개의 구성 요소들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야 설정에 있어 '역사와 교육'을 한 분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관련성이 있는 '역사와 교육', '사회와 문화'를 '역사와 문화', '사회와 교육' 분야로 정정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형적인 부분이 매우 높고 무형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존 유형적인 요소(예: 시설 등)와 더불어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무형적인 요소(시민 단체 활동, 무형문화재 등)를 추가하였으며,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보다 사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교육' 분야로 수정하였다. <표 7>

2) 제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되었던 구성 요소들을 대상으로 개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제2차 델파이 설문을 위한 새로운 평가 요소들을 다음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7〉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추출 항목

분야	구성 요소	요소 수
자연 환경	– 도시의 지형과 지질도(지질과 토양 등) – 도시 내 자원(지하 자원, 수자원, 임상 자원 등) – 기후(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등) – 수리/수문/수질(수계분석, 개발 현황, 지하수질 등) – 재해 기록(과거 지진 및 풍수해 등의 기록) – 생태/식생(생태자연도, 수림대, 보호 식물 등) – 도시 전경 변화상(도시의 공간적인 부분의 확장(변천)) – 자연 지리(지표상에서의 자연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 – 도시 내 하천, 산, 들판(경관사진)	9
인문 환경	– 행정(행정 조직, 행정 구역 변천, 도시 계획 등) – 주거지(주택 및 아파트 등) – 주요 건축 구조물(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 상징물(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 도시 경관(야간 경관, 지하 경관 포함) – 광장 및 공원(공공 공지의 위치, 면적, 성격) – 거리별 모습(세부 사진) – 도시 구성원의 유입, 전출 변화상, 세대 구성 등의 변화상 – 숙박 시설(관광지 연계)	9
역사와 문화	– 도시의 역사(도시의 기원, 성장 과정, 발전 연혁, 타 지역과의 관계 등) – 역사적 건축물(고궁 및 성곽, 전통 양식 건축물 등) – 유형 문화재(지정문화재, 역사적 장소 및 가로 등) – 무형 문화재(놀이, 풍습 등) – 인물(지역의 유명인사) – 음식 문화(전통음식, 특산물 등) –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 – 문화 관광, 문화 정책 – 지역 축제 – 인기 있는 음식점 및 기타 장소	10
사회와 교육	– 법과 치안(법원 및 경찰 기록) – 문화시설 관련(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극장 등) – 의료 및 복지시설 관련, 보건 · 복지정책(병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보호시설) – 체육시설 관련(종합 운동장, 운동 센터 등) – 종교시설 관련(교회, 절, 성당 등) – 위생시설 관련(화장장/납골시설, 공동 묘지, 도축장 등) – 사회안전, 공공질서 – 교육시설 관련(각급 학교), 교육정책 – 인구 증가, 인구 분포 – 언어(사투리) – 정치 성향(당선자별 분석) – 시민 단체 활동(사회 단체, 환경 단체 등) – 환경문제(대기오염, 소음, 악취, 쓰레기/폐기물처리 등)와 자연 보전 정책	13
산업과 경제	– 도시 재정(시 예산,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 등) – 상업 및 업무지(전통시장, 백화점, 주요상업지역, 대형판매지역, 주요업무지역) – 주요 산업(산업별 매출 총액, 산업 규모, 성장산업, 쇠퇴산업 등) – 기업체(규모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등) – 유통 · 공급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원 공급 등) – 배후지 관련(농산물의 공급지와 공산물) – 도시민의 직업별 분포, 노농, 근로조건	11

	– 지역 산업의 동향 및 변화(기업과 지역 경제활동(협력)의 관계 – 도시 농업에서부터 첨단 클러스터 산업까지) – 공장 등 노동 현장과 산업 시설 – 국내외 투자 –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교통과 통신	– 도로(도로 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 철도(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 항만(화물 처리능력, 선좌수, 화물유형) – 공항(게이트 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처리 화물) – 터미널(시외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하차장) – 도시 내 교통(역교통, 출퇴근 교통수단의 변화, 교통 수단 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 교통, 화물 교통) – 정보통신(우체국, 전화국, 정보 센터 등) – 홈페이지(도시와 관련된 각종 웹자료 포함) – 도시 교통과 정보통신의 시대별 발달 양상 – 교통 정책, 정보화 정책	10
계		62

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도시 기록화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각 분야별 구성 요소로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총 62개에 달하는 구성 요소들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 각 평가 요소별 중요성을 전문가 패널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방법은 제1차 델파이 조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전문가 패널중 80%에 해당하는 32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된 만큼 반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던 제1차 델파이 조사보다 응답이 수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렴된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 검증 차원에서 수행하였다. 특히, 2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응답을 통하여 유형화한 각 평가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통하여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평균값 3.00미만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1차 조사와는 달리,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VR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각 평가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결과는 내용 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n)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항목의 신뢰도는 항목간의 일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Crombach's α 값을 산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 도출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총 62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CVR의 비율은 델파이 패널수 4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30~1.00의 범위 안에 있는 요소만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로서의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mbach's α 값은 평가 요소 모두가 0.950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8〉 제 2차 델파이 조사결과의 구성 요소들의 타당도 및 신뢰성 분석

분야	구성 요소	신뢰도 분석			
		평균	표준편차	CVR	Crombach α
자연 환경	도시의 지형과 지질도 (지질과 토양 등)	3.81	1.061	0.375	.969
	도시 내 자원(지하 자원, 수자원, 임상 자원 등)	3.63	1.040	0.3125	.968
	기후(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등)	3.66	.865	0.1875	.968
	수리/수문/수질(수계 분석, 개발 현황, 지하 수질 등)	3.38	1.100	−0.0625	.968
	재해 기록(과거 지진 및 풍수해 등의 기록)	4.16	.808	0.625	.968
	생태/식생(생태자연도, 수림대, 보호식물 등)	3.75	.880	0.3125	.968
	도시 전경 변화상(도시의 공간적인 부분의 확장(변천))	4.38	.793	0.75	.968
	자연 지리(지표상에서의 자연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	3.41	.875	−0.0625	.968
	도시 내 하천, 산, 들판(경관사진)	4.00	.803	0.625	.969
인문 환경	행정(행정 조직, 행정 구역 변천, 도시 계획 등)	4.41	.756	0.8125	.968
	주거지(주택 및 아파트 등)	3.91	.893	0.375	.968
	주요 건축 구조물(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4.19	.738	0.75	.969
	상징물(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4.25	.672	0.75	.969
	도시경관(야간 경관, 지하 경관 포함)	3.66	.971	0.125	.968
	광장 및 공원(공공 공지의 위치, 면적, 성격)	3.72	.851	0.1875	.968
	거리별 모습(세부 사진)	3.81	.931	0.3125	.968
	도시 구성원의 유입, 전출 변화상, 세대 구성 등의 변화상	4.16	.723	0.75	.968
	숙박시설(관광지 연계)	2.97	.782	−0.5625	.969
역사와 문화	도시의 역사(도시의 기원, 성장 과정, 발전 연혁, 타 지역과의 관계 등)	4.59	.756	0.8125	.969
	역사적 건축물(고궁 및 성곽, 전통 양식 건축물 등)	4.50	.718	0.75	.968
	유형 문화재(지정 문화재, 역사적 장소 및 가로 등)	4.50	.672	0.8125	.968
	무형 문화재(놀이, 풍습 등)	4.22	.706	0.6875	.969
	인물(지역의 유명인사)	3.63	.942	0.1875	.968
	음식 문화(전통 음식, 특산물 등)	4.03	.861	0.4375	.968
	여성, 다문화, 성소수자	3.44	.948	−0.0625	.968
	문화 관광, 문화 정책	3.88	1.008	0.375	.967
	지역 축제	3.75	.880	0.1875	.969
	인기 있는 음식점 및 기타 장소	3.03	1.031	−0.3125	.968
사회와 교육	법과 치안(법원 및 경찰 기록)	3.84	1.139	0.1875	.968
	문화 시설 관련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극장 등)	4.16	.847	0.5625	.968
	의료 및 복지시설 관련, 보건 · 복지 정책 (병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보호시설)	4.06	.948	0.4375	.968
	체육 시설 관련(종합 운동장, 운동 센터 등)	3.59	.875	−0.0625	.968
	종교 시설 관련(교회, 절, 성당 등)	3.41	.979	−0.1875	.968
	위생시설 관련(화장장/납골시설, 공동묘지, 도축장 등)	3.44	.801	−0.125	.968
	사회 안전, 공공질서	3.63	1.040	0.125	.968
	교육 시설 관련(각급 학교), 교육 정책	4.03	.740	0.625	.968
	인구 증가, 인구 분포	4.19	.931	0.625	.968
	언어(사투리)	3.53	.950	0.125	.969
	정치성향(당선자별 분석)	3.13	1.040	−0.3125	.968
	시민 단체 활동(사회 단체, 환경 단체 등)	3.50	1.016	0.0625	.968
	환경 문제(대기 오염, 소음, 악취, 쓰레기/폐기물처리 등)와 자연 보전 정책	4.06	.982	0.4375	.968

산업과 경제	도시 재정(시 예산, 재정 자립도, 지방세 수입 등)	4.03	1.031	0.375	.968
	상업 및 업무지 (전통 시장, 주요 상업지역, 대형 판매지역, 주요 업무지역)	4.22	.751	0.75	.968
	주요 산업(산업별 매출 총액, 산업 규모, 성장 산업, 쇠퇴 산업 등)	4.13	.871	0.625	.968
	기업체(규모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등)	3.44	.914	0.125	.967
	유통 · 공급 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원 공급 등)	3.56	1.045	0.0625	.968
	배후지 관련(농산물의 공급지와 공산물)	3.38	1.070	−0.125	.968
	도시민의 직업별 분포, 노농, 근로 조건	3.94	.982	0.375	.968
	지역 산업의 동향 및 변화(기업과 지역 경제 활동(협력)의 관계, 도시 농업에서부터 첨단 클러스터 산업까지)	4.00	.950	0.5	.968
	공장 등 노동 현장과 산업 시설	3.47	.950	0	.968
	국내외 투자	3.16	1.051	−0.25	.968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3.09	.928	−0.3125	.968
교통과 통신	도로(도로 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 노선)	4.38	.833	0.6875	.968
	철도(철도 연장, 노선, 철도역)	4.19	.896	0.625	.968
	항만(화물 처리 능력, 선좌수, 화물 유형)	3.78	.975	0.375	.968
	공항(게이트 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처리 화물)	3.72	.888	0.125	.968
	터미널(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하차장)	4.00	.880	0.375	.968
	도시 내 교통(역교통, 출퇴근 교통 수단의 변화, 교통 수단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교통, 화물 교통)	4.09	.734	0.5625	.968
	정보 통신(우체국, 전화국, 정보 센터 등)	3.81	.965	0.25	.968
	홈페이지(도시와 관련된 각종 웹자료 포함)	3.50	1.016	−0.0625	.968
	도시 교통과 정보 통신의 시대별 발달 양상	4.00	.803	0.5	.969
	교통 정책, 정보화 정책	3.69	.998	0.125	.968
계					

이 중 내용 타당도의 비율이 0.30이하인 요소를 제거하고,[9] 설문조사시 중요하다 이상의 값을 선택한 패널 수 20명(60%)이상인 요소만을 택하였다. 이상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으로 도출된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최종 도출된 도시 기록화 구성 요소

분야	구성 요소
자연 환경	– 도시의 지형과 지질도(지질과 토양 등) – 도시 내 자원(지하 자원, 수자원, 임상 자원 등) – 재해 기록(과거 지진 및 풍수해 등의 기록) – 생태/식생(생태 자연도, 수림대, 보호식물 등) – 도시 전경 변화상(도시의 공간적인 부분의 확장(변천))
인문 환경	– 행정(행정 조직, 행정 구역 변천, 도시 계획 등) – 주거지(주택 및 아파트 등) – 주요 건축 구조물(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 상징물(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9) 이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패널의 총 수가 32명이므로, CVR값이 0.30이상이면 이 연구의 구조 속에서는 타당한 구성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거리별 모습(세부 사진) – 인구증가, 인구분포 (도시 구성원의 유입, 전출 변화상, 세대 구성 등의 변화상)
역사와 문화	– 도시의 역사(도시의 기원, 성장 과정, 발전 연혁, 타 지역과의 관계 등) – 역사적 건축물(고궁 및 성곽, 전통양식 건축물 등) – 유형 문화재(지정 문화재, 역사적 장소 및 가로 등) – 무형 문화재(놀이, 풍습 등) – 음식 문화(전통 음식, 특산물 등) – 문화 관광, 문화 정책
사회와 교육	– 문화 시설 관련(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극장 등) – 의료 및 복지시설 관련, 보건 · 복지 정책(병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보호시설) – 교육 시설 관련(각급 학교), 교육정책 – 환경 문제(대기 오염, 소음, 악취, 쓰레기/폐기물 처리 등)와 자연 보전 정책
산업과 경제	– 도시 재정(시 예산,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 등) – 상업 및 업무지(전통시장, 백화점, 주요 상업지역, 대형 판매지역, 주요 업무지역) – 주요 산업(산업별 매출 총액, 산업 규모, 성장산업, 쇠퇴산업 등) – 도시민의 직업별 분포, 노농, 근로조건 – 지역 산업의 동향 및 변화(기업과 지역 경제 활동(협력)의 관계, 도시농업에서부터 첨단 클러스터 산업까지)
교통과 통신	– 도로(도로 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 철도(철도 연장, 노선, 철도역) – 항만(화물 처리능력, 선좌수, 화물유형) – 터미널(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하차장) – 도시 내 교통(역교통, 출퇴근 교통 수단의 변화, 교통 수단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교통, 화물교통) – 도시 교통과 정보 통신의 시대별 발달 양상
계	32개 요소

자연 환경 분야의 요소는 도시의 지형과 지질도, 도시 내 자원, 재해 기록, 생태/식생, 도시 전경변화상의 5가지가 도출되었다. 인문 환경 분야의 요소는 행정, 주거지, 주요건축 구조물, 상징물, 거리별 모습, 인구 증가 및 인구 분포의 6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역사와 문화 분야의 요소는 도시의 역사, 역사적 건축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음식 문화, 문화 관광 및 문화 정책의 6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사회와 교육 분야의 요소는 문화 시설 관련, 의료・복지 시설 관련 및 보건・복지 정책, 교육 시설 관련 및 교육 정책, 환경 문제 및 자연 보전 정책의 4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산업과 경제 분야의 요소는 도시 재정, 상업 및 업무지, 주요 산업, 도시민의 직업별 분포 및 노농・근로 조건, 지역 산업의 동향 및 변화의 5가지 요소가 도출 되었다. 교통과 통신 분야의 요소는 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도시 내 교통, 도시 교통과 정보 통신의 시대별 발달 양상의 6가지 요소가 도출 되었다.

이상 총 32개의 요소가 도시 기록화 요소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시 전반의 각 환경 분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도시 기록화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는 것은 도시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한 후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에 대한 기능과 활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적합한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완성되면 그것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들을 식별해서 범주화 및 관리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연구는 도시 기록화 방안을 위해 해당 도시의 세 가지 환경인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의 기록 구성 요소를 도출함을 기본 전제로 하여, 이러한 도시 내 기록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그 기준에 상응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Delphi)기법을 적용하여 도시 기록화 분야와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고, 각 분야와 요소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6개 분야(자연환경 9, 인문환경 9, 역사와 문화 10, 사회와 교육 13, 산업과 경제 11, 교통과 통신 10)에서 62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2)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6개 분야(자연환경 5, 인문환경 6, 역사와 문화 6, 사회와 교육 4, 산업과 경제 5, 교통과 통신 6)에서 32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999.『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 보문각.

국가기록원. 2011.『기록학개론』. 대전: 국가기록원.

권상구 외. 2014.『Urban Archives: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장소의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 안양시 : 국토연구원, 2014.

권재경. 2012. 도시이미지 유형에 따른 도시브랜드 정체성 형성의 영향요인.『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지』, 10: 15-26.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기록학연구』, 21: 41-84.

권창기, 이재호. 2004. 도시이미지에 따른 도시운영 전략: 울산광역시 도시공간 및 이용계획을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보』, 18(1): 117-135.

김귀곤, 양병이. 1995.『대전광역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1-172.

노춘희. 김일태. 2012.『도시학 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박선미. 2010.『도시의 글로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아이덴티티 시각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영춘. 2002. 도시의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37(1): 29-40.

설문원. 2012.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설문원. 2010. 지역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기록학연구』, 26: 103-149.

손은영, 김종하. 2002. 도시경관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시 청소년을 대상으로.『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2): 659-662.

여진원, 장우권. 2013.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15-335.

유광흠 등. 2009.『건축 · 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영남. 2008. 마을 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기록학연구』, 18: 221-254.

전말숙. 2012.『재개발지역 도시아카이브의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테오도르 폴 김. 2009.『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서울 : 시대의창.

황정환. 1998.『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Cox, Richard J. 2001.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of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James, V. U. 1996.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rd World Countries*. London : PRAEGER Westport.

Kammen, Carol. 2003. *On Doing Local History*. CA: AltaMira Press.

Linch, K. 1975. *The Image of City*. MIT Press.

Maclaren, V. W. 1996. “Urban Sustainability Report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2): 184-202.

대구 북성로에 부는 도시재생의 바람.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1>

부산도시기록. <http://abcd.busan.go.kr/introduce/introduce.vm>

원주…길을 걷다 “展 포스터. <http://cafe.naver.com/wj24.cafe>

Baltimore City Archives. <http://baltimorecityhistory.net/>.
Connecting Histories.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http://www.cityoflondon.gov.uk/>
Wikipedia. <http://ko.wikipedia.org/>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 Mal-Suk.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Urban Archives in Redevelopment Areas*. Ph.D. diss, University of Jung Ang.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999. *A new paradigm of urban planning.* Seoul: BoMoonGak.

Hwang, Jeong-Hwan. 1998. *A Study on the determinant-factors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urban environment : case studies of the cities of Kyongju and Pohang*. Ph.D. diss, University of Seoul.

Kim, Ik-Han. 2010.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rchiving of a villag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51-172.

Kim, Kwi-Gon & Yang, Byeong-Yi. 1995. *Study for a composition specifically promote Eco-City*.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Theodore Paul. 2009. *Sagowa Jinrieseo Taeonaneun Dosi*. Seoul: Sidaewa Chang.

Kwon, Chang-Ki & Lee, Jae-Ho. 2004. "City Image and the Role of Urban Planning : The Case Study of Ulsa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18(1): 117-135.

Kwon, Jae-Kyeong & Choi, Won-Soo. 2012. "Empirical Study on Effective Factor of City Brand Identity Formation by City Image Type."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0(4): 15-26.

Kwon, Sang-Ku, et al. 2014. *Urban Archives*. Anyang : KRIHS, 2014.

Kwon, Soon-Myeong.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Society of Korea*, 21: 41-84.

Lee, Young-Nam. 2008.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21-254.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Records and Archival Studies*.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Park, Sun-Mi. 2010.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City Identity's Visual Elements for Establishing Global Identity Local Governments*. M.A. Thesis, University of Sang-Myeong.

Park, Young-Choon. 2002.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he Image of the Cit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7(1): 29-40.

Ro, Cheen-Hee & Kang, Hyung-Cheol. 2012. *New Urbanology*. Seoul: HyeongSeolSa.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

Seol, Moon-Won. 2012.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37-455.

Son, En-Yeong & Kim, Jong-Ha. 2002. A study on image of urban landscap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2): 659-662.

Yeo, Jin-Won & Chang, Woo-Kwon. 2013. A Study on the Urban Archives of Building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315-335.

Yoo, Gwang-Hum, et al. 2009.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Gyeonggido: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